

Education is the only solution

세계교육문화원 위카

COVER STORY

WE-태권도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건강한 육체와 바른 정신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태권도를 지원하는 문화사업입니다

2022
Vol.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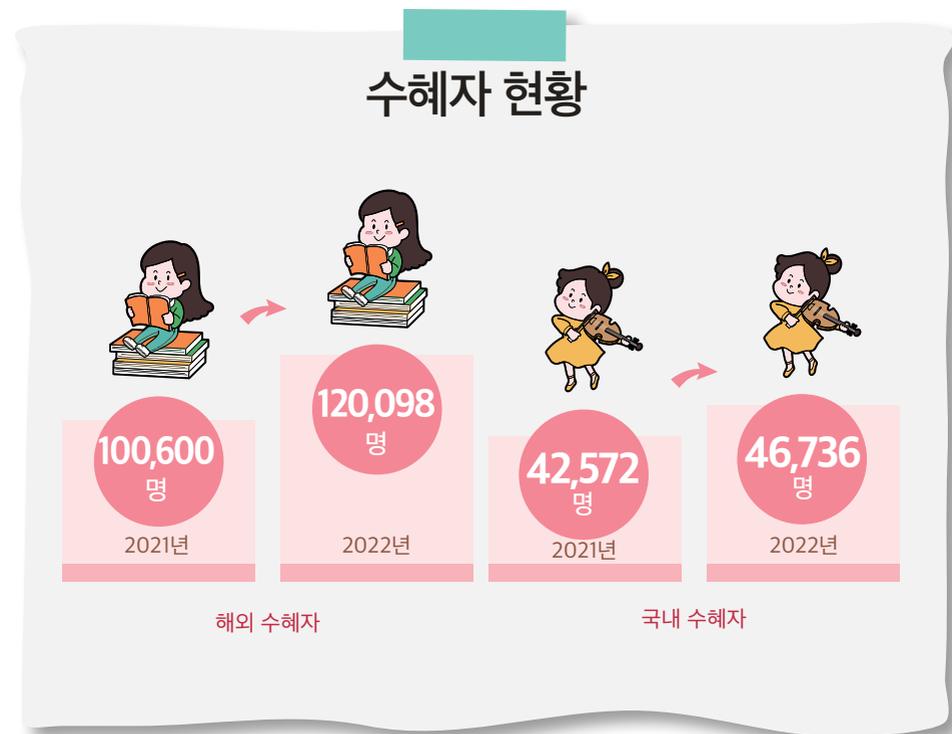


Contents

위카 수혜자 현황	03
세계속의 WECA	04
숫자로 바라보는 세상 어린이가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함, 조혼 코로나19 이후 조혼 위기에 처한 천만의 어린이들	06
주요 사업	
우간다 카산다 지역, 위스쿨(WE SCHOOL) 중학교 증축 소식	08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10
문화사업	
WE-태권도 부르키나파소 1호점	12
아이들을 위한 WE-태권도 소식	13
WECA 합창단	14
긴급 구호사업	
우크라이나 아동 긴급구호	16
산불로 무너져내린 울진 취약계층을 일으켜세우다!	18
나눔사업	
해피빈과 함께한 사랑의 연탄나눔	20
임직원이 함께하는 기업 사회공헌	22
WECA 해외활동	
위카 랭귀지스쿨	24
우간다 아고조 지역 남수단 난민촌의 위스쿨 2호 공사과 배움의 결실	26
WE-Water	27
WECA 해외활동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캠페인	28
해피빈과 함께 만든 따뜻한 이야기	30
기부와 후원	
정기후원이 만드는 기적	32

후원자님의 따뜻한 사랑이 약 17만 명의 수혜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이 해외 13개국과 국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으로 희망을 전할 수 있었던 건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도움의 손길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2만3천여 명이 증가한 166,834명의 후원자님이 운기를 나눠주셨습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나눔이 수혜자에게 전달 되는 귀한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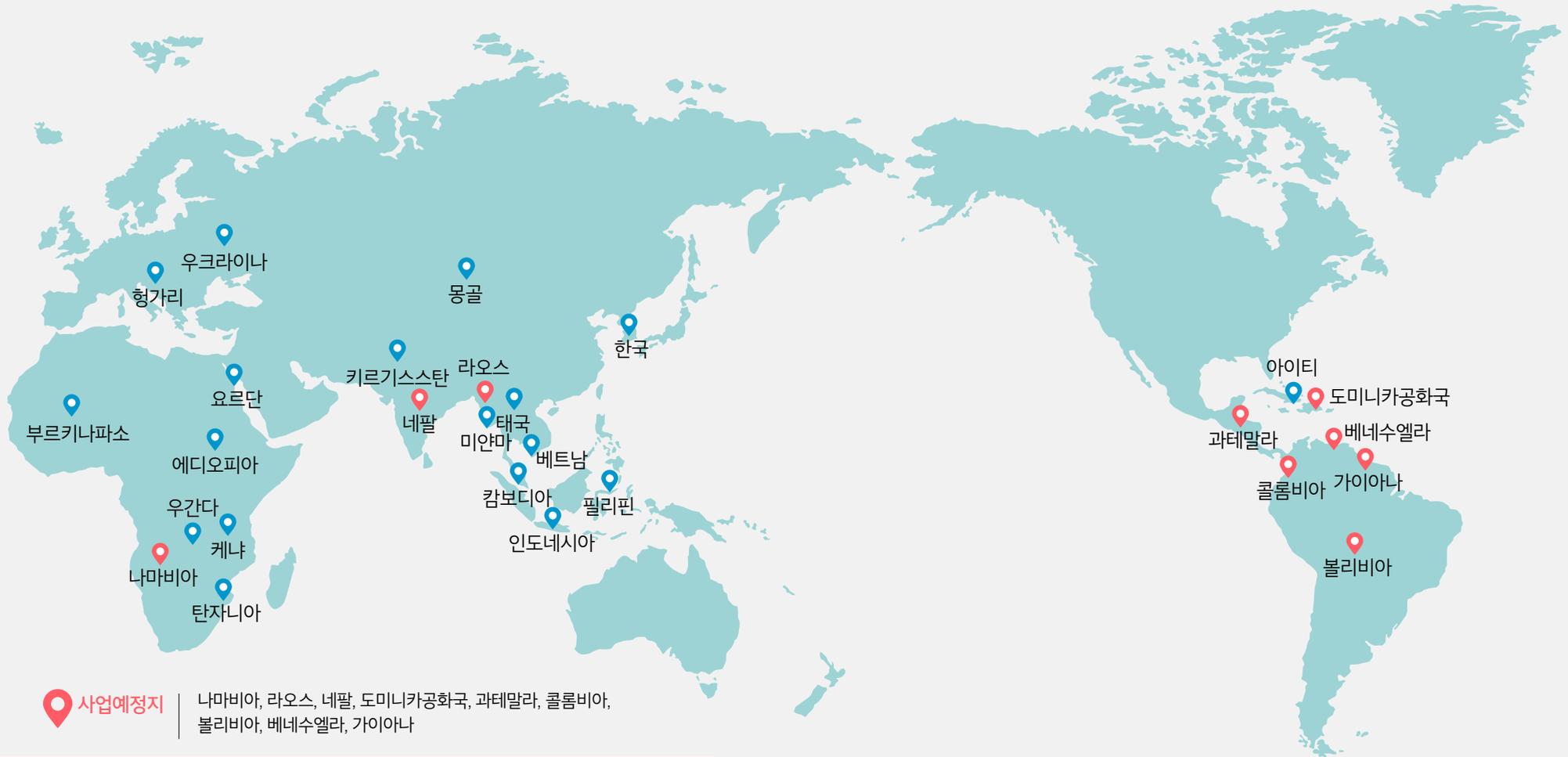


WECA 2022 Vol.08

발행처 세계교육문화원
 발행인 방정환
 발행일 2022년 5월 25일
 기획구성 세계교육문화원
 대표전화 1522-3959
 홈페이지 www.weca.or.kr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145, 1103호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 weca_korea
- weca3959
- weca3959
- wecalove
- @세계교육문화원weca
- 세계교육문화원weca





사업예정지 | 나마비아, 라오스, 네팔,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 한국**
교육사업, 문화사업, 그룹홈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학술세미나 개최, 국내아동결연, 인도적 지원 사업
- 요르단**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해외아동결연, WECA 유소년 축구단지원(WEFC) 합주단, 합창단, 태권도
- 키르기스스탄**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합주단 WECA 랭귀지스쿨(문해교실) 지원, 태권도 합주단, 합창단, 해외아동결연
- 케냐**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해외아동결연, WECA 유치원, WECA 공부방 1,2호 지원
- 탄자니아**
식수사업

-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구호
- 우간다**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해외아동결연, 나무심기사업, WECA 유치원(HIL TOP유치원)지원, 긴급구호 키트지원, 위스쿨(초등학교, 중학교)운영, 환경개선사업(도로, 전기, 주방, 화장실) WECA 유소년 축구단지원(WEFC), 염소사업, 태권도
- 에티오피아**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위드홀(수재원) 운영
- 부르키나파소**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해외아동결연, WECA 유소년 축구단지원(WEFC), 태권도
- 아이티**
지진 긴급구호

- 헝가리**
전쟁 난민 긴급구호
- 캄보디아**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해외아동결연, WECA 랭귀지스쿨(문해교실) 지원, WECA 유소년 축구단지원(WEFC), WECA 공부방 1,2호 지원, WECA 작은도서관 지원
- 베트남**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WECA 랭귀지스쿨(문해교실) 지원, KB증권 무지개교실
- 몽골**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해외아동결연

- 인도네시아**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해외아동결연, 예명 직업전문학교 및 장학생지원, 바탐 작은도서관 1호 운영지원,
- 미얀마**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해외아동결연, KB국민카드 하모니교실
- 필리핀**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유치원 운영지원, 해외아동결연
- 태국**
교육사업, 식수사업, 무료급식, 해외아동결연, 합주단

어린이가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함, **조혼** 코로나19 이후 조혼 위기에 처한 천만의 어린이들

1억 1500만명
18세가 되기 전 결혼한
전 세계 남자 어린이

잘못된
관습

부실한
법률체계



가난

종교

가족의
명예

6억 5000만명
18세가 되기 전 결혼한
전 세계 여자 어린이

약 **3250만명**
그중 15세 이전에
결혼한 여자 어린이

어린이가 조혼하는 이유

(통계출처 : 유니세프 2021유니세프뉴스 116호 자료)

미처 성장을 마치지 못한 여자 어린이가 조혼하면 조기 임신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교육 중단과 가정 폭력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남자 어린이 역시 조혼으로 경제적 압박과 노동 착취에 시달릴 수 있으며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조혼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수십 년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 빈곤,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중단으로 조혼의 위험은 다시 커졌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예상되는 조혼은 약 1천만 건입니다. 1천만의 어린아이들이 원치 않는 결혼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채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세계교육문화원과 함께해주세요.



아이들이 원치 않는 조혼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세계교육문화원은 전 세계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희망이 비전으로 발전하여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해외교육 지원사업

가난으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빈곤 국가에 학교를 세워 무료급식 및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국내교육 지원사업

열악한 환경에 처한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교육 격차 해결과 정서적 성장을 위해 공부방 환경개선, 온라인수업 기자재 및 교육 용품, 도서 등을 지원합니다.



해외아동 결연사업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빈곤 국가 어린이와 1:1 결연을 맺어 기초생계, 교육, 보건 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국내·외 문화지원사업

예술 활동 기회가 적은 국내 저소득층 가정과 빈곤 국가 어린이에게 미술, 음악, 영화, 체육 등을 배울 수 있는 체험공간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예체능 아카데미를 건립해 체계적인 배움을 제공합니다.



지역개발사업

국내·외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조사·해결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식수 지원, 위생 보건, 인프라 개선, 긴급 구호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해외봉사단 프로그램

기업, 대학 등 단체와 봉사 및 문화교육 활동을 진행해 기업과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는 나눔을 제안합니다.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닌 교육과 문화를 통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을 지원합니다. 아이들이 조혼으로 얼룩진 삶이 아닌 밝고 건강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계교육문화원과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간절히 기다렸던 소중한 우리학교,

우간다 카산다 지역,

위스쿨(WE SCHOOL) 중학교 개소식



빈곤 국가와 개발도상국 아이들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어 공교육조차 받지 못해 허기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교육' 뿐입니다. 아이들의 배도 채우면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세계교육문화원의 위스쿨(WE SCHOOL) 사업은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 위스쿨(WE SCHOOL) 중학교

그중 우간다 카산다 지역의 위스쿨에서 중학교를 건립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는 카산다 지역의 위스쿨에서는 이미 무료급식, 위생관리, 코로나 예방 등 아이들의 기초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아이들은 그동안 중등교육을 받기 위해 걸어서 2시간이 넘는 다른 지역으로 학교에 다니곤 했습니다. 등하곳길이 워낙 멀고 고단하다 보니 제때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고, 어려운 환경에 일찍이 노동으로 빠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어렵사리 초등교육을 마친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배움을 이어가려면 중학교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카산다 지역의 실정이 알려지며 후원자님의 관심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우간다 위스쿨 중학교입니다.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은 위스쿨 중학교는 하얗고 반듯하게 생긴 건물로 햇볕 잘 드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부엌과 위생을 책임질 깨끗한 화장실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부품 희망으로 가득했던 개소식 현장

개소식이 있던 날, 위스쿨 중학교 마당에는 개소식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든 카산다 시장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와 학부모, 학생 300여 명으로 분주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누구보다 중학교의 건립을 기다린 건 아마도 카산다 지역의 중학생 아이들일 겁니다.

위스쿨 중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된 38명의 중학생은 분홍색 상의와 파란색 하의를 맞춰 입고 중학교 마당에서 축하 공연을 열었습니다. 2시간씩 걸어 겨우 갈 수 있었던 중학교가 아닌 우리 마을에 생긴 위스쿨 중학교가 너무나 소중한 38명의 중학생 전원이 입을 모아 노래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축하공연 후에는 WEFC 지원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축구시합이 열렸습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의 지원으로 축구를 배운 아이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며 중학교 개소의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시합 후에는 시상식도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아이들 전원에게 옥수수죽과 빵을 나눠주며 식사를 챙겼습니다. 줄을 맞춰 급식을 받아 식사하는 아이들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간다 카산다 지역의 위스쿨에서 아이들은 간절히 기다렸던 수업을 들으며 꿈의 나라를 펼치는 중입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은 향후 학교 부지에 필요한 건물을 추가로 세우고 다양한 교육을 지원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702-770946 (예금주 : 세계교육문화원)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품다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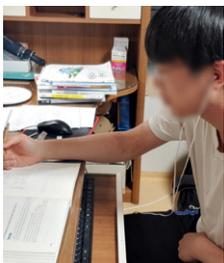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 놀이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과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입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이 지역아동센터, 그룹홈과 손을 잡고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희귀병 '로 증후군' 앓는 승우의 치료비 지원



태어난 지 한 달 반 만에 버려진 승우는 그룹홈에서 살고 있습니다. 승우가 앓고 있는 '로(Lowe) 증후군'은 선천성 백내장, 근육 긴장 저하와 지능 저하, 신장 기능장애 등을 보이는 희귀병입니다. 병원에서는 승우가 지금껏 살아있는 게 기적에 가깝다고 말하지만, 지금도 신장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교육문화원은 승우의 재활 치료와 안과치료, 약품 구입 비용 등 따뜻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학천재 호준이의 교육비 지원



무서운 가정폭력을 피해 동생의 손을 잡고 그룹홈에 입소한 호준이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입니다. 현재 고3인 호준이는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해 수학 아카데미를 세워 인재를 발굴하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늘 부족한 예산으로 허덕이는 그룹홈에서 호준이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은 호준이가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고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아동·청소년 새 학기 물품 지원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중엔 농업에 종사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거나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 가정의 아동들은 의복, 학용품 등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 또래 친구들과 비교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새 학기를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계교육문화원은 인제군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운동화, 학용품 세트를 지원했습니다. 물품을 전달받은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손하트로 마음을 전하는 인증샷을 보내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원예치료 지원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심리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원예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처음 원예치료를 경험한 지역아동센터 37명의 아이는 자신만의 아담한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원예치료를 통해 밝고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 에너지를 선물 받았습니니다.

지역아동센터 설날 식료품키트 지원



명절에 겨우 라면을 먹거나 그나마도 없어 끼니를 거르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했지만, 모두 문을 닫는 명절이면 홀로 배고픈 시간을 견뎌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세계교육문화원은 설맞이 식료품키트를 마련했습니다. 설맞이 식료품키트는 3개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110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전달됐습니다. 키트를 전달받은 아이들은 오랜만에 배부르고 따뜻한 설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WE-태권도 부르키나파소 1호점



지난해 세계교육문화원에서 세운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WE 태권도 1호점 소식이 나날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부르키나파소는 문화, 스포츠를 배울 인프라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배움의 기회가 전무한 환경이지만 그곳에도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고 싶은 아이들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육문화원은 지난해 9월 공사를 마치고 'WE 태권도 1호점'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보 미개발 빈민 지역의 열매중학교와 연계해 160여 명 아이를 대상으로 태권도 정규 수업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매중학교 전 학년 아이들은 WE 태권도 1호점으로 찾아와 수요일과 토요일에 각 2시간씩 태권도를 배웁니다. 다소 어려운 태권도 용어와 생소한 동작들이지만, 부르키나파소 아이들의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토요일 수업은 태권도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유난히 많이 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도장에 자리가 부족해 도장 앞 나무 그늘 밑에 열을 맞추고 태권도를 배울 정도입니다.

지도해야 할 아이들이 많아져 코치 선생님도 1명 더 고용했습니다. 정확한 품새와 동작을 갖추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은 태권도 영상도 시청합니다. 수업을 마친 후 세계교육문화원에서 준비한 음료수와 초콜릿으로 허기를 채우는 간식 시간도 아이들에게 큰 행복입니다. WE 태권도 1호점이 있기에 부르키나파소 아이들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그리고 가슴 벅차게 태권도를 배우며 희망찬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우간다 아고조 지역의 남수단 난민

아이들을 위한 WE-태권도 소식



세계교육문화원은 우간다의 아고조 지역 아이들에게도 태권도 수업을 선물했습니다. 놀 거리와 배울 기회가 부족한 아고조 지역의 남수단 난민촌에 태권도 수업이 열린다는 소식은 하루하루 아이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태권도 강사 섭외, 도복 등을 준비한 세계교육문화원은 올해 1월부터 매주 1~2회 1시간씩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은 나이와 운동능력, 이해력의 차이에 따라 그룹을 나눠 태권도를 지도해줍니다. 각 그룹의 리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저녁 시간에 따로 개인지도도 받습니다.

처음 배워본 태권도가 재밌는지 아이들은 수업이 있는 날이면 학교에서 태권도 수업이 열리는 운동장으로 힘껏 달려옵니다. 도복을 갈아입고 각자 몸풀기를 하며 수업을 기다리는 아이들 모두 활짝 웃는 얼굴입니다.

비록 실내 도장이 마련되지 않아 야외 운동장에서 배우고 있지만, 도복을 갖춰 입고 구령에 맞춰 품새를 배우는 아이들의 표정이 제법 진지합니다. 처음 배워본 한국의 태권도를 통해 아고조 지역 아이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태권도를 사랑하는 마음 가진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702-770946 (예금주 : 세계교육문화원)

키르기스스탄 아이들의 멋진 선율, WECA 합창단



개발도상국 및 빈곤 국가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은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신기루 같은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생계를 걱정하고, 학업 역시 생계유지를 위해 배우는 게 우선시 되는 사회다 보니 미술, 음악 등 예술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음악의 힘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

중앙아시아 북부에 있는 키르기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우리 교민과 고려인이 다수 거주하는 곳으로 배움의 기회와 다양성이 넉넉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곳에서 세계교육문화원은 WECA 합창단을 열어 음악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단원은 노래를 좋아하는 다민족 아동으로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조직된 합창단에서 아이들이 생소했던 음악을 배우고 노래를 부른 지 어언 9개월이 넘어 갑니다. 그동안 부쩍 자란듯한 아이들은 수업이 있는 날이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얼굴로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처음 합창단에 들어올 때는 난생 처음 악보를 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배워본 적은 없지만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부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합창단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열심히 배우고 화음을 맞추며 합주에 도전했습니다. 아이들이 합창단에 참여한 9개월간 부쩍 자란 건 음악의 아름다움과 협동의 가치를 몸소 경험한 덕분입니다.



가슴 벅찬 축제 'WECA 합창단 정기 연주회'

그리고 9개월간 열심히 배운 바를 세상에 알려야 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WECA 합창단 제1회 정기 연주회'가 예정된 것입니다. 처음 배운 합창과 연주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앞에서 선보인다는 생각에 아이들은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연습을 해왔습니다.

항상 왁자지껄하고 활발한 아이들이지만 연습에 임할 때는 누구보다 진지했고 눈망울이 반짝였습니다. 노래와 함께 울동을 연습하는 날이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끼리 손발을 맞춰보기도 했습니다. 합창단의 7살 아이는 연습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가족 모임에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의사 표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합창단 선생님 모두가 웃음을 터뜨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토록 아이들이 기다리던 정기 연주회는 2021년 12월 25일 키르기스스탄 국립미술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렸습니다. 네이비색 단복에 빨간 타이를 맞춰 입은 아이들이 그동안 연습한 노래와 연주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다민족 아이들이지만 음악이라는 멋진 하모니를 만드는 데는 모두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무대를 마친 아이들에겐 공연장이 떠나갈 듯 큰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WECA 합창단은 음악으로 소통하며 긍정의 힘을 배울 예정입니다. 더불어 세상을 향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합창단이 되겠다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WECA 합창단의 멋진 무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놓지않는 희망의 끈

우크라이나 아동 긴급구호



지난 2월 24일,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로 미사일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총을 든 러시아 군인들도 밀려들었습니다. 곳곳의 주택과 아이들이 있는 학교, 유치원이 폭발하고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옥'이란 단어가 무색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무자비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급히 인근 나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나마 국경을 넘지 못한 아이들은 지하철역 등에 숨었고,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희생당한 사람들의 소식이 속속 들려옵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은 절망에 빠진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쟁 난민이 된 우크라이나인의 일상을 복구하고 참혹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간절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헝가리로 이동한 난민 아동 긴급 구호



세계교육문화원은 도움이 시급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긴급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협력자를 통해 전쟁고아, 피해 아동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을 피해 급히 피난 온 우크라이나인들은 인근 국가의 난민캠프와 쉼터에 가득했습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은 이중 인근 국가인 헝가리 자호니 지역으로 이동한 난민 아동을 대상으로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선 협력자와 논의해 현지에서 시급히 필요한 물품으로 담요와 식수, 식품 등을 100개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속옷 등 위생용품도 제공했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이 아무 희망없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교육용 기자재, 교육용 칠판과 학용품, 아동용 장난감과 교구를 발송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함께 지내야 하는 쉼터에서 자칫 주눅 들기 쉬운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세계교육문화원에서 제공한 학용품과 장난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놀이를 하고 틈틈이 공부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거대한 공포를 경험했던 아이들이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는 'WECA 임시쉼터'



세계교육문화원은 난민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위카 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카쉼터에서 구호활동을 펼치며 만난 난민들의 피난 사연은 모두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쉼터에서 만난 난민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에서 번듯한 직장을 갖고 여유롭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체류하면 애기가 달라집니다. 한 달 월급이 한화 기준 30만 원 정도인 우크라이나 난민은 유럽의 살인적인 기저귀값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쉼터에서 만난 3살 마티체는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지 이틀째에 세계교육문화원과 만났습니다. 필요한 물자는 많지만 돈이 없던 마티체 가족에게 간절했던 위생용품과 식품을 전달했고, 마티체의 어머니인 폴리나는 일자리 안정지원 보조를 받아 피난 생활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중년의 나다는 장성한 아들과 며느리를 우크라이나에 남겨두고 4명의 손자와 국경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성인 남성은 징집 대상이기에 아들은 함께 올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보고싶어 하는 손자들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나다를 위로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국경을 넘을 당시 입고 있던 옷이 전부인 난민이 대부분이라 현지에서 의류는 매우 귀합니다. 세계교육문화원에서 공수해온 의류는 쉼터에 찾아온 난민들에게 너무나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전쟁이 마침표를 찍고 모든 난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세계교육문화원의 구호활동은 계속 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전쟁의 피해 속에서도 아이들이 긍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702-770946 (예금주 : 세계교육문화원)

역대 최장기 산불, 터전을 잃은 아이들

산불로 무너져내린 울진 취약계층을 일으켜세우다!



거친 바람이 불던 3월 4일, 울진에서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산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산불은 무려 13일간 지속되었습니다. 33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피해구역은 20,923ha에 달합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무너진 울진 취약계층의 손을 잡기 위해 세계교육문화원은 급히 울진으로 향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터전, 절망하는 아이들

산불이 휩쓸고 간 울진에는 처참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낡고 오래된 집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위로 산에서 밀려온 재와 흙더미가 덮쳤습니다. 종잇장처럼 휘어지고 떨어져 나간 지붕이 곳곳에 널려있고, 빼대만 앙상하게 남은 집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울진에는 형편이 어려워진 부모의 품을 떠나 조부모님과 사는 아이들의 조손가정이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며 근근하게 살아가는 저소득 가정도 많습니다. 그러한 취약계층 가정은 산불로 인해 집이 무너져내리고 모든 살림살이를 잃었습니다. 평소 열악한 환경에 거주했던 취약계층일수록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세계교육문화원 임직원은 긴급구호를 위해 방문한 현장에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 흘리는 이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불에 탄 집 앞에서 “여기를 떠나면 내가 어딜 가서 살 수 있나.”라며 황망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가 계셨고, 그 곁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함께 울고 있는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울진 아이들의 희망을 재건하다

우선 세계교육문화원은 울진 취약계층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300가정에 마스크, 휴지 등 생계 물품을 빠르게 지원했습니다. 300가정에 보내는 물품이다 보니 부피가 크고 양이 많아 세계교육문화원의 모든 직원이 힘을 합쳐 포장하고 차에 싣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울진에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황망해 하는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계속돼 대피한 주민들이 모여있는 울진 대피소에 찾아가 필요한 물자를 확인하고 추가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집이 전소된 조손가정 중 도움이 시급한 4가정을 선정해 아이들의 공부방 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곳곳했던 조손가정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다가오는 6월에 공부방 재건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산불이기에 그만큼 주민들의 상처가 크고, 복구도 오래 걸릴 예정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산불로 인해 생계와 일상이 막막해진 조손가정에는 더욱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슬픔에 빠진 울진의 조손가정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계교육문화원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702-770946 (예금주 : 세계교육문화원)

소외계층의 겨울밤을 지켜준 따뜻한 하루 해피빈과 함께한 사랑의 연탄나눔



우리나라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여전히 10만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중 대부분이 고지대 달동네와 오래된 집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입니다. 그나마 연탄을 넉넉히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에 의지해 살아가는 형편이다 보니 연탄 한 장 마음 편히 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따뜻한 이유는 이웃의 어려움에 공감해준 후원자님과 자원봉사자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계속된 세계교육문화원의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그 훈훈한 현장으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완성한 연탄 6600장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밤, 소외계층의 집은 한층 더 냉랭합니다. 연탄을 쓰는 달동네에서도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은 밤새 동상이라도 걸릴까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연탄은 넉넉지 않아 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어떻게든 연탄을 아껴보려 한겨울에 찬물로 씻기도 한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땐 혹한기의 추위가 서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은 해피빈 캠페인을 통해 저소득층의 어려운 실정을 알렸습니다. 해피빈 후원자님들과 손을 잡고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교육문화원의 취지에 공감해주신 기업 유한킴벌리와 후원자님들로부터 8,000,000원의 모금액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모금액 전액은 6600장의 연탄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연탄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외계층 33가구에 전달했습니다.



21명의 봉사자와 함께 한 겨울나기

후원금과 함께 또 하나 따뜻한 소식도 전해져왔습니다. 굵이굵이 가파른 동네에 연탄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21명의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겁니다. 지난 2월 24일 서울 흥제동 개미마을 앞에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층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그중에는 직장에 휴무를 내고 참여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불황으로 연탄 나눔이 급격히 줄어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개미마을의 독거 어르신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방문을 환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을 오르내린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엔 구슬땀이 맺혔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한 덕분에 2400장의 연탄은 무사히 전달됐습니다. 소외계층의 겨울밤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자원봉사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소외계층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웃 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세계교육문화원 역시 사랑의 연탄나눔에 함께 해준 후원자님과 자원봉사자님의 마음을 오래도록 되새기며 어려운 이웃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702-770946 (예금주 : 세계교육문화원)



힘을 합치면 이웃의 행복 두 배! 나누는 즐거움도 두 배!

임직원이 함께하는 기업 사회공헌



넵튼의 선별진료소 의료진 격려물품 지원



넵튼의 임직원이 코로나19 오미كرون 대유행 시기에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응원하는 격려 물품을 준비하는 데 동참해주셨습니다. 격려 물품은 총 160세트가 준비됐으며, 금천구 보건소의 코로나19 의료진과 현장 근무자에게 전달됐습니다.

랑콤의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뷰티 브랜드 랑콤에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를 지원했습니다. 이로써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가 없어 등교를 포기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월경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신한은행의 설맞이 식료품키트



신한은행에서 설 명절에 끼니 챙기기가 어려운 조손, 한부모, 다문화 가정 110가구를 대상으로 설맞이 식료품키트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식료품 키트에는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떡국 밀키트와 국, 반찬, 간식 등이 풍성하게 담겨있었습니다.

행복얼라이언스와 결식우려아동 지키기



행복얼라이언스와 세계교육문화원이 손을 잡고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결식우려아동에게 쌀을 지원했습니다. 총 2,100kg의 쌀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사회공헌

세계교육문화원은 각 기업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업과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는 나눔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진절차



함께하는 기업들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희망의 빛을 밝히다

위카 랭귀지스쿨



빈곤 국가, 다문화 가정,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고려인, 탈북민 등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언어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모국어를 비롯한 언어, 그리고 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아이들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의 학교가 바로 위카 랭귀지 스쿨(WE LANGUAGE SCHOOL)입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은 현재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필리핀, 케냐, 우간다 등 11개 국가에 16개 위카 랭귀지 스쿨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미얀마의 어학당과 캄보디아의 유치원이 더 많은 아이를 희망으로 이끌기 위한 증축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배우는 기쁨을 키워나가는 미얀마 매따웅유아 어학당 신축

전기와 수도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미얀마의 매따웅유아 마을은 아이들이 공부할 학교가 갖춰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10살이 넘도록 모국어인 미얀마어를 제대로 쓸 줄 모릅니다. 자기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세계교육문화원은 매따웅유아 어학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공식을 열고 2022년 3월 어학당을 열기까지 많은 이들의 관심과 정성이 모여들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없는 매따웅유아 마을이기에 우선 전기와 수도시설을 만들고,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한 우물을 지었습니다.

약 167평의 땅 위에는 하얀 벽에 파란 계단을 올린 2층 학교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화사한 핑크색 벽으로 마무리된 교실 안에는 아이들이 귀 기울여 공부할 수 있도록 책걸상이 놓였습니다.



이곳에서 매따웅유아 마을에 사는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배움의 기쁨을 누리며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움이 간절한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 돈라이 유치원 증축

캄보디아 시엠립 돈라이 지역에는 세계교육문화원이 세운 돈라이 유치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파란 지붕이 덮인 돈라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이곳 아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안식처입니다. 캄보디아는 수도인 프놈펜을 제외하면 공교육이 거의 공급되지 않고 부모들의 교육수준도 낮아 자녀의 교육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라이 지역 아이들 50% 이상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인근 공장에 보내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돈라이 유치원에는 20명의 원생, 초등학교에는 44명의 학생이 공부합니다. 하지만 교실은 단 3칸이었고, 유치부 2반과 초등학교 5반이 수업하기에 교실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 천으로 칸을 막아 분반도 했지만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고, 교재와 교사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세계교육문화원은 돈라이 지역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치원 증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공사를 진행해 교실 3개 뿐이던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널찍한 5개의 교실로 증축에 성공했습니다. 교실 내부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선풍기가 설치되고 깨끗한 책상과 의자, 칠판 등이 마련됐습니다.

증축이 완성된 후 돈라이 지역 아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학교에 찾아옵니다. 작열하는 햇볕 아래 수업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이제 시원한 교실에서 글을 배우고 노래를 부르며 컴퓨터도 배웁니다.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가난이 대물림되던 돈라이 지역 아이들은 이제 책상에 앉아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702-770946 (예금주 : 세계교육문화원)

아고조에서 도착한 따뜻한 소식

우간다 아고조 지역 남수단 난민촌의 위스쿨 2호 공사와 배움의 결실



우간다 아고조 지역에는 남수단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들이 모여 사는 난민촌이 있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땅 위에 비바람을 피해 겨우 지낼 만한 가옥과 천막을 난민 스스로 지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룬 아고조 지역의 난민은 무려 10만여명입니다.

이토록 많은 난민이 사는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아고조 난민촌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교육과 더불어 당장 먹을 음식과 몸을 보호할 물품, 위생 등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부족한 게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은 아고조 난민촌에 위스쿨 2호를 세워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무료급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첫 삽은 지난 2021년 4월에 뚫었습니다. 위스쿨 2호는 교실 10칸과 교무실을 포함한 건물 1동과 2동으로 짓고 있습니다. 2동은 건설이 완료됐고, 현재 1동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1동 공사까지 마무리되려면 2023년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은 2동 건설이 마무리되자 삼삼오오 위스쿨 2호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위스쿨 2호에서 난민촌 아이들은 영어와 모국어 배움입니다. 매주 1~2회 태권도 수업에 참여해 남수단 아이들에게 생소한 문화 체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유로 영양을 공급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염소 지원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에 푹 빠진 아고조 난민촌 아이들을 위해 세계교육문화원은 속히 위스쿨 2호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난민촌 아이들은 어려운 시기를 딛고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로 뻗어 나간 희망의 물줄기, WE-Water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국가 탄자니아에는 수도 시설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푸른 하늘 아래 건조한 흙길을 걸어 다니는 아이들의 필수품은 물통입니다. 학교에 수도는 물론 우물조차 없어 집 근처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갖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우물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이 목마름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터입니다. 이에 세계교육문화원은 우물이 간절한 탄자니아의 두 학교를 선정해 우물과 워터펌프를 설치하는 WE-Water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탄자니아의 VIKANGARA 초등학교와 KIGUZA 초등학교입니다. VIKANGARA 초등학교는 수도에서 약 70km 떨어진 시골마을 학교로 약 350명의 학생이 다니는 곳입니다. KIGUZA 초등학교는 수도에서 약 50km 떨어진 학교로 학생 수가 약 1,500명이며 이중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급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우물이 없어 두 학교 모두 아침마다 아이들은 작열하는 햇볕을 받으며 물통과 책가방을 짊어지고 몇 시간씩 걸어 등교합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두 학교에 우물과 워터펌프 건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1,850명의 학생을 비롯해 인근 주민 7,400명이 힘겹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지 않아도 수도를 틀어 시원한 우물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물 공사를 마치고 수도를 처음 개시하던 날, 수백 명의 학생이 수도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윽고 수도꼭지를 돌려 굶주린 물줄기가 터져 나오자 아이들은 다 같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지켜보던 교사들과 인근 주민들도 환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WE-Water 캠페인은 탄자니아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희망의 물줄기를 선물했습니다.



해피빈

월경으로 남몰래 고민했을 아이들을 위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캠페인



‘생리 빈곤(period poverty)’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리대를 사지 못해 학교에 결석하고 홀로 고립되는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한 팩에 오천 원이 훌쩍 넘는 생리대 가격은 생계조차 어려운 가정의 여성 청소년에게 너무나 버겁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 15만 명의 여성 청소년이 생리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리대가 없어 휴지, 깔창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여성 청소년의 경우 질염, 골반염, 염증성 피부질환 등을 앓을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 못지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일쑤입니다. 때문에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은 축복받아야 할 월경으로 인해 자신의 몸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싫어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교육문화원과 해피빈 후원자님이 손을 잡고 여성 청소년을 위한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따뜻한 격려를

생리 빈곤의 어려움에 공감해주신 후원자님들의 나눔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키트로 제작되어 전달되었습니다. 키트 안에는 생리대 6팩, 월경통을 줄여주는 찜질팩과 수면 양말, 여성청결제 등 월경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제품으로 꽉꽉 채워졌습니다.

2월에 진행되었던 완성된 생리대 키트는 평화모자원, 해피홈, 한국청소년쉼터 등 지원센터와 여주시청, 평택시청, 금천구청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전달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원이 부족해 늘 마음이 쓰였던 지원센터 담당자들은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월경이 상처로 남지 않도록 응원해주세요

할아버지, 오빠와 사는 수연(가명)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 형편 때문에 생리대를 사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가족 사이에도 할아버지께 생리대를 사달라는 말을 꺼내는 게 여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렵사리 생리대를 사더라도 아껴 쓰느라 하루 한 두 개로 버티기도 했고, 그마저도 없을 땐 등교를 포기한 날도 많습니다.

수연이처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월경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아이들을 위해 9,235명의 후원자가 참여해주셨고, 총 32,361,900원의 모금은 아이들에게 생리대 구입비로 100% 전달되었습니다.



바다 건너서도 전달된 따뜻한 후원

생리 빈곤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해피빈 모금을 진행하였고 제주도에 사는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152명에게 생리대 키트가 전달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 지원이 활발치 않았던 제주의 소녀들은 생리대 키트를 지원받아 오랜만에 예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702-770946 (예금주 : 세계교육문화원)

매서운 겨울에서 포근한 봄으로 해피빈과 함께 만든 따뜻한 이야기

취약계층 아이들의 겨울용 의류 지원



에너지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 가정에서는 월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지출합니다. 소득의 많은 부분을 난방비로 사용하지만, 그나마도 넉넉지 않아 일하러 나간 부모님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보일러를 켜지 못하고 냉랭한 집에서 추위를 견뎌냅니다. 세계교육문화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들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겨울용 의류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에 공감해주시신 해피빈 후원자님의 정성으로 1,451,700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모금액으로 국내 취약계층 아동 56명이 집안에서 따뜻하게 입기 좋은 후리스와 내복을 구입해 양천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의 해피 크리스마스 만들기



겨울철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다소 쓸쓸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심에 부푼 아이들의 마음은 너무나 소중한기에 세계교육문화원은 두 번의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국내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캠페인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70여 명의 아이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간식 및 식사비로 사용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알려진 우간다의 카산다 지역 아이들을 위한 캠페인에서는 우간다 아이들이 갖고 싶었던 가방, 신발, 티셔츠를 구입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처음 받아본 크리스마스 선물에 카산다 지역 아이들은 크게 감성을 질렀답니다.



봄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따뜻한 난방텐트



겨울이 길어질수록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두렵고 힘겨운 시간도 길어집니다. 텅 빈 집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이불로 몸을 둘둘 말고, 수면양말을 신어도 이가 딱딱 부딪힙니다. 취약계층 가정에게 겨울철 집은 냉랭하고 얼음장 같은 공간입니다. 추운 집에서 지내며 위축되지 않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계교육

문화원은 해피빈에 모금함을 열었습니다. 후원자님이 나눠주신 온기로 5,174,600원의 모금액이 완성됐습니다. 모금액 전액은 중계본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 가정 20가구에 난방 텐트와 난방비,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추위에 움츠린 어깨를 활짝 펴고 행복한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702-770946 (예금주 : 세계교육문화원)

희망을 전하는 정기후원 정기후원은 기적을 만드는 나눔입니다.

후원자님들의 정기후원은 NGO가 정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귀한 자원입니다. 일시후원과 정기후원 모두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만, 정기후원은 체계적·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케 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인 문제와 복합적인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직접 활동하는 전문가 및 NGO와 함께 통합적인 접근과 다각적인 도움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기후원은 그러한 나눔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자원이 됩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큰 기적을 이뤄냅니다. 정기후원을 통해 그 기적에 동참해주세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세·계·교·육·문·화·원
WECA www.weca.or.kr

(0850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1103호(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세계교육문화원 위카
TEL 1522-3959



※ 신청서를 작성 후 반을 접어 풀질로 붙여주신 뒤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WECA 정기후원회원 신청서

□인적사항 ※개인정보는 후원관리 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이메일 _____

주소 _____

□후원금액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월 10만원 □기타(_____) 원)

결연후원 □월 3만5천원 X _____ 명 후원금 _____ 원

□후원방법

■ CMS자동이체 ※매월6일(잔액이 없을 경우 21일) 진행되며, 세계교육문화원으로 자동이체됩니다.

은행명 _____ 계좌번호 _____

예금주 _____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 _____

■ 신용카드 결제 ※매월6일(잔액이 없을 경우 21일) 진행되며, 세계교육문화원 또는(주)나이스페이먼트로 승인됩니다.

카드명 _____ 카드번호 _____

소유자명 _____ 유효기간 _____ 월 _____ 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주민번호 _____

※소득세법 160조의3. 시행령 208조의 3입니다.

※ 본인은 자동이체의 원활한 서비스제공, 신규등록 통지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금융결제원, 은행 등 금융기관, (주)나이스페이먼트)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 제 3자 제공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하며, WECA 정기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나눔의 시작

WECA와 함께하세요”

후원참여

작은 나눔으로 아이들의 미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계좌이체 / 신용카드, 전화, 홈페이지, 후원용지를 통해 신청

□일시후원

WECA 홈페이지를 통해 캠페인별 후원신청

□자원봉사

캠페인 참여, 행정업무 등의 봉사, 디자인, 사진, 영상, 번역, 등의 재능기부

□참여형 기부캠페인

해외 빈곤 아이들을 위해 물품을 만들어 전달하는 활동

□후원문의

1522-3959 | www.weca.or.kr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2-770946

외환은행 630-009125-412

농협 301-0038-6648-81

하나은행 360-910009-65504

국민은행 009901-04-024345

□예 금 주

세계교육문화원



후원정보 변경

후원과 관련된 정보나, 주소, 전화번호, 소식 수신방법 등 개인 정보의 변경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1522-3959

• 홈페이지 로그인 > 후원방식 및 개인정보



